

## 시대의 흐름 따르는 성교육

# 성이 진정 아름답기 위해서

래드리본 은 보다 현실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2002년 한해들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여 기획을 연재한다.



**임필빈** 여의도성모 병원 비뇨기과 의사, 성 에세이 (아니 여자가 어디 처녀가: 동아일보 사) 저자

얼마 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대학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필빈 언니, 14세 남자 환자 인데요, 두 달 전부터 소변볼 때 아프고 요도에서 고름이 나온대요. 빨리 봐 주세요. 600 호에 입원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내가 병실로 오면서 상상했던 대로 중학생답지 않게 흰칠한 키에 건장한 체구, 여드름 자국도 별로 없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여성 팬들이 많을 것 같아 보였다.

"여자친구 있니?" "아니오." "그럼 누구랑 잤니?"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아는 누나랑 잤어요. 누나가 저를 꼬신거예요." "언제부터 요도에서 고름이 나왔니?" "며칠 있다가요." "왜 병원에 안 갔어?" "별거 아닌 줄 알고 참으면 나올 줄 알았어요." "콘돔은 왜 안 썼는데?" "그냥요. 그런 것 사러 갈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옮았지. 너 그 누나가 임신해서 네 애 낳으면 내가 누나랑 얘기랑 별어 막일 자신있어?" "아니오. 자신 없어요." "앞으론 콘돔 꼭 끼어야?" "아, 아, 아니오. 앞으론 절대 이런 짓 안할래요. 저 정말 너무 아팠어요. 이런 병 생길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선생님 이거 성병이에요?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소변 배양 검사해서 무슨 균이 자라나 보자. 임질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고 매독 이랑 에이즈에 관한 검사도 같이 해야 한다.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마. 그 대신 앞으로 네 몸은 네가 잘 관리해야 한다. 너 또 한번 이런 병 걸리면 그뻔 정말 큰 일 날 줄 알아."

짙은 가을 생활 중 우연히 알게 된 누나(역시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을 소년)와 성 관계를 하다가 요도염에 걸린 무늬만 어른인 이 어린 학생의 글썽글썽 하는 눈망울을 보니 며칠 전에 수술 받았던 재수생 청년이 떠올랐다.

포경 수술도 아직 받지 않은 이 청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아가씨와 여관에 가서 성 관계를 한 후에 성기 끝(포피 부위)에 성기사마귀(콘딜로마)가 생겼다고 한다. 그냥 물 사마귀인가 싶어 무시하고 지내던 중 점점 커지는 게 손톱만 해지니 덜컥 겁이 나더라. 근처 비뇨기과 의원으로 달려갔는데 성기 사마귀가 너무 크다면서 여기서는 치료가 힘들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였다.

수술 방에서 흘러당 포피를 제쳐 자라 복 빠지듯 귀두를 노출시키니 성기 몸통에 브로콜리같은 모양의 성기사마귀가 온통 뒤덮고 있었다.

작은 사마귀가 한 두개 있으면 그냥 전기소작으로 없애면 되었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고 키시 결국 사마귀가 달려 있는 성기 부분의 피부를 몽땅 도려내고 포경 수술을 해버렸다.

불론 수술 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호전되었지만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말에 그 청년은 우울해 하면서 이기적거리며 걸어 나갔다. 나에게 성병으로 진료를 받았던 청소년들이 어디 이 두 명뿐이겠는가?

▶ **평범한 가정의 '보통' 청소년 성병환자들**  
성병 환자의 연령층을 보면 물론 20대 이후의 성인층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점점 그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교생들도 성병에 노출되고 있음을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일핏 생각하면 이런 성병에 걸려오는 청소년들은 공부도 안하고 가솔하는 날라리 비행 청소년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반의 말씀! 10년 전 만해도 가정환경이 나쁜 가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하면서 마약이나 유희 행위를 통해 임신, 성병에 노출되기 쉬웠으나 놀란게도 요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차지한다.

청소년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몸은 이미 어른처럼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PC방이나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해 '하리수의 섹시누드' 동영상 같은 성적인 자극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접할 수 있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섹스 파트너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문화와 발전은 성

자본차 운전술 하기 전에 면허를 따고 연수를 받아야 하듯이 성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성의 개념 이해와 실질적인 심 지식이 필요하다.



의 원칙에서 솟아 나온다' 고 하였다. 성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깨끗이 풀게 도와 주기도 한다. 성의 신비롭고 건전하고 흥미로운 자극은 무비건조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분명 활력소가 되어 준다.

그러나 자본차 운전술 하기 전에 면허를 따고 연수를 받아야 하듯이 성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성의 개념 이해와 실질적인 심 지식이 필요하다. 손자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 하지 않았던가?

청소년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개방된 성문화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병과 임신 등의 문제로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것이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후에 세포 분열을 통해 태아가 된다는 식의 교육보다는, '성적으로 흥분된 남자의 발기된 성기가 여자의 질 안에 삽입된 후 사정을 하게 되면 극 치감을 느낌과 동시에 요도에서 정자가 나오는데 이때 나온 정자와 배란이란 현상을 통해 난소에서 나온 난자와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정란이 된다.

임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삽입 직전에 콘돔을 사용하거나 평소 주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야 된다' 고 말이다.